

고등어·참조기 어획 부진 8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해양수산부, 전년비 1.2% 줄어든 7.9만톤

고등어와 참조기의 어획이 부진하며 8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동월에 비해 1.2% 감소했다. 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7만9000톤으로 지난해 8월 8만1천톤에 비해 1.2%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2만5000톤, 오징어 1만톤, 고등어 7300톤, 전갱이 6200톤, 갈치 4600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추이는 오징어(102%↑), 전갱이(121%↑), 꽃게(81%↑)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멸치, 갈치, 청어는 전년 수준, 고등어(58%↓), 참조기(29%↓)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오징어는 올해 1~3월 주산량인 동중국해에서 적정산란 수온이 형성됨에 따라 원활한 산란환경이 조성돼 유생밀도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해 여름철 주 어장인 서해에서의 어군밀도가 크게 증가했다. 전갱이는 제주남부해역에서의 적정서식수온 형성에 따른 어군밀도 증가와 주 어종인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꽃게는 2018년 산란기에 실시한 유생분포 밀도조사에서 전년에 비해 유생밀도가 약 2배 증가(8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장으로의 유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증가했다.

반면, 고등어는 주 어장인 제주도 주변해역의 남해 동부해역 및 서해 남부해역에 걸쳐 전년(평년 대비 1~2℃)의 저수온이 분포해 어군이 분산되고, 잦은 태풍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어획이 잠정적으로 감소했다.

참조기는 주 어종인 제주남부해역이 금어기(4. 22.~8. 10.)를 끝내고

조업을 재개했으나, 제주 서부해역의 저수온 분포에 따른 어군밀도 감소로 전년에 비해 어획이 부진했다.

8월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전년 2955억원보다 11.3% 증가한 328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어종별 생산액은 전년보다 오징어가 690억원으로 87%, 꽃게가 238억원으로 76%, 전갱이는 68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멸치(358억), 갈치(317억), 가자미류(68억)는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참조기는 66억원으로 전년보다 50%, 고등어도 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각각 감소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의 연근해어업 누계생산량은 총 52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51만5000톤에 비해 2.7% 증가했다. 또 8월까지의 연근해어업 누계생산액은 2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267억원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방탄소년단 렌즈 판매 6일 서울 송파구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지하1층 왕관 행사장에서 한 직원이 업계 최초로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oys With Love' 렌즈를 선보이고 있다.

식품 온라인 '역직구' 48% 증가

해외 직접 판매 규모 크게 성장 가능성 기대

식품의 온라인 해외 거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직접 판매 규모가 크게 성장해 앞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 식품의 해외 직접 판매액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462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 중국은 348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75%를 차지했다.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구매액이 많은 곳은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지역(5.4%)과 일본(4.9%)이었다.

이처럼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식품 시장의 성장이 정체 상태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품 부문 소매업 판매액은 10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해외 직접 구매자, 즉 '하이타오(海淘)족'이 급증하며 성장세가 가파르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이타오족은 1

억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 2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해외직구 품목 중 식품·음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중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다양하고 고품질의 제품이 부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해외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직구 경험이 많은 국가다.

다만 해외 직구 규모에 비해 해외 직접 판매 수효는 미미한 수준

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식품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6748억원으로 2014년 3058억원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구매한 규모가 전체 중 4985억원이었고, 다음은 유럽(910억원), 오세아니아(389억원), 일본(278억원) 순이었다.

온라인에서의 식품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시장이 발달한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식품 브랜드를 적극 알리고 신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구매를 망설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 879 회차 당첨결과 (2019년 10월 5일 추첨)

1	4	10	14	15	35	+	20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6	3,206,361,313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7	41,641,05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594	1,236,06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23,497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52,27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일업일)

몸값 낮아진 '킹크랩'

이마트, 9일까지 레드 킹크랩 '5980원' 판매

이마트는 오는 9일까지 제철을 맞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마리당 2~3kg)을 100g당 5980원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아산 킹크랩 판매가는 지난 7월 100g당 9480원에서 8월 8980원으로 내려간 데 이어 5000원대까지 떨어지며 가격이 3개월 새 35%가량 저렴해졌다. 실제로 러시아산 킹크랩의 수입 시세는 10월 초 현재 kg당 30~35달러 사이로 형성돼, 올 7월 50~60달러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킹크랩이 몸값이 낮아진 것은 최대 소비자 중 하나인 중국의 킹크랩 소비가 부진한 반면 러시아의 킹크랩 조업량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만톤의 킹크랩을 수입했던 중국은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등으로 고급 갑각류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킹크랩 수입량이 예년 같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올 9월부터 중국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킹크랩 물량이 전년 대비 20~30%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킹크랩 생산량은 2년 새 50%가량 증가했다. 2016년 1만7000톤이던 킹크랩 생산량은 풍부한 어족자원과 수요 증가로 인해 2017년 2만 1000톤, 지난해 2만6000톤까지 늘어났다.

정기영 이마트 수산물 바이어는 "중국의 킹크랩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러시아산 킹크랩의 국내 반입량이 크게 늘어나 동해안

의 수산물 계류장이 킹크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라며 "이번 행사는 레드 킹크랩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신문
전화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